

【자료소개】

滿洲지역 地方志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고대사 관련자료 검토*

— 『中國地方志集成』 遼寧府縣志輯, 吉林府縣志輯(2006)을 중심으로 —

조우연**

■ 차 례 ■

1. 머리말
2. 중국의 滿洲지역 지방지 찬술과 집대성
3. 『中國地方志集成』에 수록된 한국고대사 관련 자료
4. 주목되는 내용 검토
5.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고대사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문헌사료의 절대 부족이다.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만주지역 ‘地方志’라는 특정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고대사 관련 기사를 발췌하고, 그 중 일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한 해제를 붙여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초 문헌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中國地方志集成』 遼寧府縣志輯, 吉林府縣志輯(2006)은 현재까지 발행된 다양한 지방지 집대성 성과 중에서 가장 최근 자료이므로 이를 기초 검토대상으로 삼았으며, 遼寧省과 吉林省 두 지역의 지방지 각각 54冊, 52冊을 검토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한국 고대사 관련 기사를 각각 448件, 217件 추출하였다. 비록 기록 대부분이 단편적인데 그치고 있으나, 正史에 수록되어

* 이 글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AKS-2010-AGC-2101)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있지 않은 내용이나, 유적 등에 관한 현지 전승 및 기록 당시 지식인들의 역사인식이 반영되어 있어 관련 연구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주제어 : 滿洲, 地方志, 『中國地方志集成』, 遼寧省·吉林省, 한국고대사

1. 머리말

‘地方志’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에 대해 일정 體例에 따라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헌으로서, 해당지역의 백과사전과도 같다. 지방지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나, 근·현대 지방지는 대개는 疆域, 沿革, 山川, 名勝, 古跡, 人口, 政治, 軍事, 工業, 農業, 交通, 財政, 文化, 教育, 宗教, 風俗, 名人 등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시대부터 지방지의 성격을 놓고 논쟁이 있어왔는데, 혹자 歷史書로, 혹자 地理書로 인식해왔다. 다만 지방지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비록 지리서의 범주라고 하더라도 역사문헌으로서의 성격을 질게 띠고 있어,¹⁾ 梁啓超도 “最古之史, 實爲方志”²⁾라고 하여 지방지를 가장 오래된 역사 문헌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지방지는 일종의 地域史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³⁾ 사회의 변동에 해당하는 변방지역 역사는 중앙에서 주도한 正史와 같은 관찬 문헌에 소략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지는 그러한 변방지역 역사 연구에 중요한 보완 사료가 된다. 특히나 문헌사료가 절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고대사 연구에서 지방지는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일부 왜곡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지 찬술 당시 지역 지식인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러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름 의미가 있으며, 인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1) 陳光胎, 1998, 『中國方志學史』, 福建人民出版社, 5~6쪽.

2) 梁啓超, 2004(1926), 『清代學者整理舊學制總成績3 - 曆史學, 方志學, 傳記及譜牒學』 『中國近三百年學術史』, 東方出版社, 324쪽.

3) 『重修臺灣縣志』 卷首 “夫邑之有志, 猶國之有史也”

중요한 자료가 된다.

중국의 지방지는 春秋戰國 시대 제후국의 역사서나, 『山海經』과 같은 지리서 및 圖經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⁴⁾ 後漢 시기, 반고가 찬술한 『漢書』 地理志나, 晉代의 摯虞가 찬술한 『畿服經』만해도 지리서 성격을 질게 띠고 있다. 그 후, 隋·唐에서 宋·元시기에 이르러, ‘志’, ‘圖志’라는 이름이 붙여진 지방지 성격의 官撰 문헌이 대거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들로 『諸郡物產土俗記』, 『區域圖記』, 『諸州圖經集』, 『元和郡縣圖志』, 『(重修)天下圖經』, 『太平寰宇記』, 『輿地紀勝』, 『大元一統志』 등이 있다.

明·淸시기는 지방지 발전 전성기로서, 특히 淸代에 이르러 중앙권력이 크게 강화되면서 지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지를 대량으로 편찬하였다. 현전하는 8천 여 종의 지방지 중에서, 청대에 찬술된 것이 6천 여 종에 이른다. 그 후, 淸末~民國시기에 이르러 불안정한 시대상황에서도 지방지 찬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개는 新修, 重修 성격의 정리 작업이었다. 中華民國 元年(1911)에서 35년(1946)에 이르기까지 1200여 종에 달하는 지방지가 정리되었다.⁵⁾

이 글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집대성하여 출간한 滿洲지역 지방지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고대사 관련 자료를 발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만주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까이 위치해 있을 뿐더러,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무대이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헌 검토가 필수이다. 하지만 현재 正史 기록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자세히 이루어진데 비해, 여타 문헌자료에 대한 정리 작업은 미진한 상태이다. 비록 정사 기록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중앙 史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지나치게 선택적으로 기술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와 맥을 달리하는 현지 전승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사 기록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정사에서 지방의 역사를 소략하게 다루고 있는데 반해,

4) 胡政平, 1999, 「簡論中國古今方志與編修」 『蘭州大學學報』 27(2), 132쪽.

5) 高金山, 2008, 「地方志的起源與發展」 『新疆地方志』 2008年 第3期, 5쪽.

지방지에는 찬술 당시 잔존해 있던 유적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되어 있어, 일종의 보완 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높다. 그 외에도 또 당시 현지 지식인들의 인식을 반영해주고 있으므로 사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행된 다양한 지방지 집성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中國地方志集成』(2006)에 수록되어 있는 만주지역 지방지를 연구 기초자료로 삼았는데, 앞선 시기 여러 집성 결과물에 비해 수록된 지방지 數目이 소상하기 때문이다. 또 遼寧(遼寧府縣志輯), 吉林(吉林府縣志輯) 두 지역 지방지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黑龍江 부분은 일단 제외시켰는데, 한국고대사의 무대가 거의 위의 두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渤海를 제외하면 흑룡강까지 소급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엄밀히 말해 이 글은 특정 주제를 다룬 논문이라기 보다는 자료소개와 해제에 가까운데, 방대한 만주 지방지 집성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한국고대사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일조하려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2. 중국의 滿洲지역 지방지 찬술과 집대성

가장 이른 시기의 만주지역 지방지는 元 大德연간에 편찬된 『遼陽行省圖志』라고는 하나, 현재 逸失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지방지는 明 嘉靖연간에 편찬된 『遼東志』(嘉靖16 / 1537)와 『全遼志』(嘉靖45 / 1566)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清代에 이르러 『盛京通志』(康熙23 / 1684) 등 지방지들이 대거 찬술되었다. 특히나 19세기 50년대에서 20세기 초, 급변하던 국제 정세 속에서, 한, 러, 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었던 만주지역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을 집대성한 지방지들이 해당지역 지방 관료와 지식인들에 의해 대량 찬

술되기에 이른다. 이들 지방지는 대개 지역사의 전개, 지리 연혁, 행정구역 변천, 산천, 유적, 민족 등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淸이 멸망하기 전까지 요녕, 길림, 흑룡강 지역의 府·縣志는 각각 68종, 33종, 6종이 편찬되었다고 한다. 그 후, 中華民國 시기에 이르러 지방지 재정리 작업이 대거 이루어지면서, 요녕, 길림, 흑룡강 지역의 지방지가 각각 95종, 49종, 38종이 편찬되었다.⁶⁾

중국 지방지 集成 작업은 20세기 초, 일본인들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支那省別全志』(1917~1920), 『新修支那省別全志』(1941~1946) 등이 그것이다. 중국에서는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근·현대 지방지를 影印형태로 집대성하여 출간하기 시작하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규모의 지방지 자료들이 취합되었다.

대표적인 지방지 집성 결과물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종합

『中國方志叢書』(成文出版社, 1966~1985)

『中國地方志聯合目錄』(中華書局, 1985)

『中國稀見地方史料集成』(學苑出版社, 2009)

『中國地方志集成』(上海書店出版社, 巴蜀書社, 江蘇古籍出版社(鳳凰出版社), 1991~ 현재)

2) 특정 所藏處

『日本藏中國罕見地方志叢刊』(書目文獻出版社, 1991~1992)

『日本藏中國罕見地方志叢刊續編』(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天一閣藏明代方志選刊』(上海古籍出版社, 1981~1982)

『天一閣藏明代方志續編』(上海書店出版社, 1990)

6) 任海濱, 王廣義, 2006, 「東北地方志與東北史地研究」 『東北史地』 2006年 第4期, 82쪽.

『天一閣藏明代方志補刊』(寧波出版社, 2009)

『故宮珍本叢刊』(海南出版社, 2001)

3) 특정 지역

『中國邊疆史志集成』內蒙古史志, 新疆史志, 西藏史志, 東北史志, 海疆史志
(中華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制中心, 2002~2005)

『中國邊疆研究資料文庫』邊疆方志文獻初編 東北及北部邊疆, 西北邊疆, 西南邊疆, (知識產權出版社, 2011)

4) 특정 시대

『宋元方志叢刊』(中華書局, 1990)

이상의 지방지 집성 중, 만주지역 지방지를 비교적 소상히 수록한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를 손꼽을 수 있다.

(1) 『中國方志叢書』(만주지역 지방지 41冊)

臺灣의 成文出版社에서 1966년~1970년, 1974~1976, 1983~1985년 세 차례에 걸쳐 影印 출판한 중국 지방지 집성인데, 도합 5359冊의 지방지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만주지역과 관련해서는, 遼寧省, 安東省, 遼北省, 黑龍江省, 興安省, 合江省, 松江省, 嫩江省 등 아홉 행정구역에 소속돼 있는 지역의 지방지 41冊을 수록하고 있다.

(2) 『中國邊疆史志集成』東北史志』(全81冊)

중국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制中心에서 2003에 출판한 것인데, 『盛京通志』, 『奉天通志』와 같은 특정 지역의 지방지도 일부 수록하고 있으나, 대부분 『滿洲源流考』, 『滿洲實錄』, 『東三省紀略』, 『吉林省志略』, 『吉林通志』, 『遼東志』,

『全遼志』, 『黑龍江鄉土錄』과 같은 종합적 성격의 지방관련 문헌들을 대거 집대성하여 수록하고 있다.

(3) 『中國地方志集成』(만주지역 지방지 43冊)

중국 江蘇古籍出版社(鳳凰出版社), 上海書店, 巴蜀書社 세 출판사에서 1991년부터 진행해온 지방지 집대성 사업의 결과물인데, 만주지역에 해당하는 요녕, 길림, 흑룡강 지방지는 2006년에 출판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집성 중에서 가장 최근 출간된 『中國地方志集成』遼寧府縣志輯, 吉林府縣志輯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앞선 시기 『中國方志叢書』에 수록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참조하여 살폈다. 다만 『中國邊疆史志集成』東北史志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지나치게 방대한데다가, 특정지역 지방지라기보다는 만주 전역 혹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행정단위에 대해 언급한 總志나 通志 성격의 문헌이 많으므로 일단 이번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에 비해, 『中國地方志集成』에서는 府, 縣이라는 행정단위별로 찬술된 府志, 縣志, 鄉土志를 비교적 소상히 집대성하였는데,⁷⁾ 국내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헌들이 대부분이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7) 지방지의 종류를 總志, 通志, 府志, 州志, 廳志, 合志, 縣志, 鄉鎮志, 鄉土志, 都邑志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張革非, 1992, 『中國方志學綱要』, 西南師範大學出版社, 5~6쪽), 그 중, 總志는 중국 전역이나 여러省去 걸친 지방지를 말하고, 通志는 한省의 지방지를 일컫는데, 모두 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그에 비해, 府志나, 縣志, 鄉土志 등의 記事 범위는 府, 縣이라는 비교적 작은 행정단위로 제한된다.

3. 『中國地方志集成』에 수록된 한국고대사 관련 자료

1) 『中國地方志集成』遼寧府縣志輯

〈표 1〉

출 전	저자 ⁸⁾	연대	건수	한국고대사 관련 내용
『宣統承德縣志書』	都林布 修, 李巨源, 徐守常 纂	1908	0	
『民國沈陽縣志』	趙恭寅 修, 曾有翼 等 纂	1917	8	발해(瀋州, 東牟山, 瀋州古城), 고구려(遼水, 唐代古城, 高麗古城, 佛教), 기타(帶方山, 新羅山, 三韓 관련)
『宣統新民府志』	管風和 纂修	1909	1	고구려(遼河와 관련해서 ‘巨流河-古 勾驪河’ 언급)
『民國新民縣志』	王寶善 修, 張博惠 纂	1926	4	고조선(滿潘汗, 漢四郡), 부여, 北沃沮관련 언급, 고구려(연혁, 古城, 遼河), 발해(東牟山),
『民國遼中縣志』	徐維淮 修, 李植嘉 等 纂	1930	2	고구려(遼東), 백제(遼西)
『康熙遼陽州志』	楊鏞 修, 施鴻 纂	1681	4	고조선(箕子), 고구려(高麗門, 遼東郡-遼東城, 古蹟-高麗城, 嚴州-白巖城, 인물-李世勤, 薛仁貴, 蘇定方, 唐太宗), 발해(古迹-渤海古城, 白巖縣)
『民國遼陽縣志』	裴煥星, 董英森, 王煜斌 修, 白永貞 等 纂	1927	43	고조선(기자조선, 한사군-현도군, 朝鮮王準), 고구려(遼東城, 遼東國, 北燕 시대 天降 甲冑, 對 隋唐 전쟁, 新城, 安東都督, 嚴州城, 高麗城, 高麗城子, 唐王寨城, 古城子, 山城山, 唐壘, 高麗大塚, 東明王墓, 인물-祭彤, 田丘儉, 慕容翰, 李勤, 高崇가문(고구려 출자), 불교전파, 전승-高麗秘記, 石雞戒旦), 발해(渤海城, 石城, 인물-高楨, 張浩), 기타(지명-朝鮮嶺, ‘高力堡’, ‘高力牆’, ‘高麗門’, ‘高力溝’, ‘高麗菊’)
『光緒遼陽鄉史志』	洪汝沖 修, 白永貞 編纂	1908	6	고구려(연혁, 인물-祭彤, 田丘儉, 公孫度, 高崇가문(고구려 출자), 郡縣 및 唐과의 전쟁)
『光緒海城縣志』	陳藝 修, 張文藻, 趙中鵠 等 纂	1907	2	고조선(箕子, 漢四郡), 고구려(沙卑城(卑奢城))

8) 地方志는 일종의 官撰 문헌으로서 저자를 ‘修’와 ‘纂’으로 구분하는데, “XXX 修”란 지방지 편찬을 주도한 지방 관료를 말하고, “XXX 纂”은 실제 집필자를 지칭한다(王德恒, 許明輝, 賈輝銘, 1994, 『中國方志學』, 文化藝術出版社, 196쪽)

『民國海城縣志』	廷瑞 修, 孫紹宗, 張輔相 纂	1924	27	고조선(玄菟郡, 樂浪郡 속지, 箕子, 衛滿, 不咸山, 朝-漢 전쟁), 고구려(北魏시기 고구려로 편입, 백제-遼西 장악, 沙卑城, 고구려 古城 유적, 蓋蘇屯, 麗-漢 전쟁, 麗-隋唐 전쟁(白巖城, 安市城), 인물-蔡諷, 耿臨, 公孫度, 卍丘儉 등) 발해(海州, 嬾州城-淸州, 花山縣), 기타(지명-‘高麗房’, 沃沮國)
『民國撫順縣志』	張克湘 修, 周之楨 等 纂	1931	3	고구려(유적-南城子), 불교전파(一然을 고구려승려로 인식), 기타(연혁)
『民國海城縣志』	陳蔭翹, 常守陳 修, 宋作賓, 戚星岩 纂	1937	19	고조선(箕子, 遼東 남부와 평양일대 潘服의 땅, 玄菟郡, 樂浪郡 속지, 溟水), 고구려(後燕 시기 편입, 沙卑城, 泉井郡, 인물-蔡諷, 耿臨, 公孫度, 卍丘儉 등, 불교 전파), 발해(南海府), 기타(沃沮 위치 고증-東京 龍原府)
『宣統懷仁縣志』	馬俊顯 修, 劉熙春 纂	1909	8	고조선(箕子, 고조선 건국, 漢四郡), 고구려(고구려 略史, 인물-耿夔, 卍丘儉 등, 高麗城)
『民國桓仁縣志』	侯錫爵 修, 羅明述 等 纂	1929	7	고조선(箕子, 고조선 건국, 漢四郡), 고구려(고구려 略史, 인물-耿夔, 卍丘儉 등, 高麗將軍石)
『民國續修桓仁縣志』	常荷祿 修, 趙國棟 纂	1937	7	고조선(箕子, 고조선 건국, 漢四郡, 天文), 고구려(고구려 略史, 인물-耿夔, 卍丘儉 등, 高麗城)
『宣統撫順縣志略』	程廷恒, 趙宇航 修, 黎鏡蓉 等 纂	1911	2	고구려(고구려현), 기타(지명-‘高麗營子’)
『民國興京縣志』	沈國冕, 蘇顯揚 修, 蘇民, 劉熙春 等 纂	1924	2	玄菟郡, 고구려, 발해 속지
『宣統昌圖府志』	洪汝冲 修, 李巨源 纂	1910	2	扶餘 속지, 부여와 鮮卑 사이
『民國昌圖縣志』	程道元 修, 續文金 纂	1916	2	扶餘 속지, 부여와 선비 사이, 藻離國의 鳳州
『光緒康平縣鄉土志』	李紹綱, 徐芬 纂	1908	0	
『康熙鐵嶺縣志』	賈弘文 修, 董國祥 纂	1677	4	고조선(箕子), 발해(富州, 富壽縣, 美州), 고구려(唐王營)
『民國鐵嶺縣志』	陳藝 修, 蔣齡益, 鄭沛綸 纂	1915	29	고조선(漢四郡 시대 樂浪郡 속지, 朝鮮三韓의 땅), 부여의 동북 挹婁의 땅, 고구려(北魏에서 唐까지 요동 장악, 銅山縣, 勿吉과의 전쟁, 扶餘(城)-開元북부지역, 撫安古城, 唐王營), 발해(富州, 동모산 위치 언급, 大氏 출신과 건국, 門藝), 기타(高麗站, 高麗屯, 高麗營, 高麗穀)

『民國鐵嶺縣續志』	楊宇齊 修, 張嗣良 纂	1933	1	고조선(漢四郡, 樂浪郡 속지), 발해(富州)
『萬曆開原圖說』	馮瑛 纂	1595	0	
『康熙開原縣志』	劉超凡 修, 周志煥 纂	1678	4	扶餘(通州-夫餘王城, 隆州), 고구려(韓州-鄭 頡府), 발해(扶餘府, 永平縣, 通州-扶餘城)
『民國開原縣志』	李毅 修, 王毓琪 纂	1929	16	부여 도읍지, 고구려(蓋蘇文山), 발해(扶餘 城, 扶餘府), 기타(지명-‘高麗屯’, 遼河-句麗 河-拘流河)
『民國西豐縣志』	蕭德潤 修, 張思書 纂, 曹肇元 補修, 希廉 等 補纂	1938	6	고조선(기자), 漢代부터 南北朝-부여속지, 그 후, 고구려, 발해 속지, 고구려(건국신 화) (현재 鐵嶺市 속지), 기타(‘高麗菊’)
『康熙蓋平縣志』	略雲 纂修	1685	9	고조선(箕子, 辰韓의 땅), 고구려(인물-李 勣, 薛仁貴, 劉仁軌 등, 淤泥河, 蓋牟城, 建 安縣, 東明王墓), 기타(‘高麗城’, ‘高麗城 山’)
『民國蓋平縣志』	石秀峰, 辛廣瑞 修, 王鬱雲 纂	1930	14	고조선(현도군 속지, 平郭縣, 安市縣 설치, 기자, 위만, 우거, 辰韓의 땅), 고구려(남 북조시기부터 속지, 평광현에 建安城 설 치, 蓋牟城, 湯池堡-安市城, 유물-文字銘石 佛像, 유적-靑石關, 石城山, 高麗城), 백제 (遼西 점거), 발해(辰州), 기타(五代 시기, 다시 고구려로 편입, ‘七女墓’)
『光緒蓋平縣鄉土志』	張國珍 纂	1908	2	고조선(衛滿, 玄菟郡 속지),安市, 平郭 설 치), 고구려(蓋牟城, 湯池堡-安市城), 발해 (辰州, 鐵州(安市))
『民國蓋平縣鄉土志』	章運燾 修, 崔正峰, 郭春藻 纂	1920	8	위와 같음. 고구려(유적-蓋蘇貞墓)
『光緒盤山廳鄉土志』	柴樸 修纂	1907	1	고조선(朝鮮國), 고구려, 발해 속지
『民國復縣志略』	程廷恒 修, 張素 纂	1919	7	고조선, 玄菟郡, 고구려 속지; 기타(지명- ‘高麗營’, 고구려 유적-‘土城’, ‘句驪故國’ 唐太宗과 관련된 전승) (현재 瓦房店市)
『民國鳳城縣志』	沈國冕 等 修, 蔣齡益 纂	1919	5	濊貊의 땅, 고조선(箕子), 玄菟郡 속지, 고 구려(北魏 시기 고구려 奚部 침입, 慶州, 開州城, 유적-柵城), 발해(東京龍原府(柵城 府) 속지), 기타(‘熊山城’)
『民國莊河縣志』	廖彭, 李紹陽 修, 宋掄元 等 纂	1919	11	沃沮의 땅, 周代-조선, 漢代-玄菟郡, 隋代- 고구려(유적-城兒山, 黃貴城子, 高麗城子), 발해-南海府, 기타(지명-‘高麗城山’, 유적, 유물-高麗墓, 石佛)
『咸豐岫岩志略』	台隆阿 修, 李翰穎 纂	1857	11	고조선, 漢四郡-玄菟郡 속지, 고구려(慶州, 巖州-白巖城, 龍原縣), 발해(東京龍原府, 龍 河郡, 會農郡, 吉理郡), 기타(유적-‘玉皇廟 山’-고구려 봉화대, 大孤山-高麗城, 城兒山)

				산성, ‘高麗墳’, 蟒溝山-高麗館山城, 娘娘城)
『民國岫岩縣志』	高乃濟, 彭世祺 修, 郝玉璞 纂	1928	23	遼東樂浪三韓의 땅, 漢 초기-樂浪 東沃沮, 후한-현도군 속지, 晉, 隋唐-고구려 속지, 고구려(慶州, 麗-唐전쟁 약술, 蓋牟城 별칭 ‘蓋葛牟’, 朴氏-고구려 후손), 발해(東京龍原府 白巖縣), 기타(유적, 유물-娘娘城山, 礮台山, 唐帽山, 高麗城, 娘娘城-관련 전승, 雁月刀, 高麗墳, 土城, 古城,)
『民國寬甸縣志略』	程廷恒 修, 陶牧 纂	1915	3	滿의 땅, 秦漢-沃沮 집거, 고구려(麗-隋唐 전쟁), 기타(지명-‘高麗盆道嶺’)
『宣統彰武縣志』	趙炳榮 纂修	1909	0	
『民國安東縣志』	關定保 等 修, 於雲峰 等 纂	1927	7	고조선의 변경지대, 주만-濊貊, 고조선(滿 潘汗, 沛水, 溟水, 歲君南閭, 기타-멸망에 이르는 略史), 漢四郡-玄菟郡 속지, 北魏, 隋唐-고구려 속지, 고구려(鳳凰城, 초기-宮에 이르기까지 略史; 對 隋唐 전쟁 略史, 유적 -九連城), 발해(東京龍原府), 기타(鴨綠江-馬訾水-溟水)
『康熙錦州府志』	劉源溥, 孫成 修, 範勳 纂	1683	4	周代-고조선 경계지대, 隋代-고구려 속지, 유적-高麗坂城, 唐壘)
『康熙錦縣志』	王奕曾 修, 範勳 等 纂	1683	0	
『民國錦縣志略』	王文藻 修, 陸善格, 朱顯廷 纂	1919	6	유적-安昌故縣, 古大人城(唐 군량 저장), 기타-‘高麗菊’
『民國義縣志』	趙興德 等 修, 薛俊升, 王鶴齡 等 纂	1931	70	燕 長城에 관한 언급, 고조선과 燕의 경계지역, 晉, 隋代-고구려(遼河 以東 차지, 奚部 속지, 建德, 冀陽 2郡 유지, 遼東, 樂浪, 昌黎 철괴, 唐의 고구려 정벌), 기타-昌黎郡(縣) 고증, 隋의 遼西郡 설치, 安東都護府 관련 略史, 고구려-遼東, 백제-遼西, 戰事-고조선과 漢, 고구려와 郡縣, 卍丘儉의 고구려 침공, 慕容廆의 樂浪郡 설치(張統)-낙랑군(義州 동쪽), 帶方郡-永洛縣 남쪽 小凌河 동북쪽에 위치. 崔崧 고구려 망명, 慕容氏와 고구려의 전쟁, 後趙-前燕의 전쟁(고구려가 후조에 협력), 기타-‘高麗穀’, ‘高力井子’, ‘高麗村’, ‘高力村’,
『康熙廣寧縣志』	張文治, 項蕙 修, 範勳 纂	1683	2	周代-고조선 경계지대, 隋代-고구려 속지, 유적-唐壘 (현 北鎮 지역)
『光緒廣寧縣鄉土志』	蕭春雨 編纂	1907	5	고조선(衛滿), 隋代-고구려 속지, 발해(顯德府, 率賓之馬)
『康熙寧遠州志』	馮昌奕 等 修, 範勳 纂	1683	0	

『民國興城縣志』	恩麟, 王恩士 修, 楊蔭芳 等 纂	1926	3	麗-隋唐 전쟁 - 진군 경로, 李景-고구려 武廬城 합락
『民國北鎮縣志』	王文璞 等 修, 呂中清 纂, 楊煥文 續修, 劉振翮 續纂	1928	16	고조선(기자), 현도군, 고구려(유적-高麗板城) 발해(顯德府, 특산-梨, 李), 기타(유적-誓臺)
『民國建平縣志』	田萬生 修, 張滋大 纂	1931	15	匈奴 左方王將 동쪽으로 濊貊 조선에 접함, 三韓縣(遼에서 설치)
『民國錦西縣志』	張鑿唐, 劉煥文 修, 郭遼 等 纂	1929	5	張儉, 程名振-麗·唐전쟁에서 전공, 韋冲-嬰陽王의 遼西침공 격퇴, 기타-紅螺峴鎮
『民國綏中縣志』	文益 修, 範炳勳 等 纂	1927	7	慕容垂-樂浪郡 속지, 礪石, 麗-隋 전쟁, 唐에서 柳城지역에서 전몰 군사를 위해 제사, 인물-耿變, 橋元, 賈沈 등, 기타-鱈說文出樂浪瀋國,
『民國朝陽縣志』	周鐵錚 修, 沈鳴詩 等 纂	1930	4	고구려(宿軍城), 유적, 유물-玄羊山(고구려將軍印 습득)
『乾隆塔子溝紀略』	哈達清格 纂	1773	0	
총계			448	



〈그림 1〉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지역

2) 『中國地方志集成』吉林府縣志輯

〈표 2〉

출 전	저자	연대	건수	수록 내용
『民國長春縣志』	張書翰, 馬仲 援 修, 金毓 趙述雲, 敵 纂	1931	35	兩漢, 三國, 晉 - 부여 속지; 부여건국신화; 부여 略史; 광개토왕비문의 고구려 시조신화; 동부여와 북부여 고증; 동진 ~ 남북조, 隋-고구려(夫餘城) 속지; 당-발해(夫餘府) 속지; 부여 종족-貉族; 기타-부여 名馬; 豕 사육; 濊-虎神 숭배; 文彪; 新立城 유적(고구려성으로 추정)
『民國德惠縣鄉土志』	石紹廉編	1937	1	지역이 부여의 남쪽에 해당
『民國雙陽縣鄉土志』	吉人 修, 吳榮柱, 陳永 奉 纂	1915	1	隋 이전에 고구려 속지
『光緒打牲烏拉鄉土志』	打牲烏拉總管 衙門 修纂	1891	0	
『民國農安縣志』	鄭士純 修, 朱衣點 纂	1928	15	先秦-肅慎, 挹婁; 漢~晉-부여; 北魏-고구려(夫餘城); 唐-발해(夫餘府); 부여건국신화; 부여와 郡縣 관계(전쟁, 왕래); 고구려의 부여 출자(주몽신화); 고구려千里長城 축조; 麗·唐 전쟁; 고구려와 부여의 풍속; 유적-農安城(부여성)
『民國延吉縣志』	吳錄貞 修, 周維楨 纂	1914	11	西漢-樂浪郡 東部, 東漢~三國-沃沮侯, 晉~南北朝-고구려, 唐~五代-渤海 率賓; 濊貊, 沃沮 영역 언급, 고려와 고구려 구분 논의
『民國吉林方正縣志』	楊步墀 纂修	1919	0	
『民國賓縣志』	宋云桐, 張書 翰, 趙汝梅, 德 壽 等 修, 朱衣點 等 纂	1929	0	
『民國珠河縣志』	孫荃芳 修, 宋景文 纂	1929	0	
『民國磐石縣鄉土志』	姚祖訓 修, 毛祝民 纂	1937	1	고구려 古城址
『民國琿春縣鄉土志』	林珪 修, 徐宗偉 纂	1935	2	漢-北沃沮; 당-발해(賀四州) 속지
『宣統輝南廳志』	薛德履 修, 張見田, 於龍 辰 纂	1910	1	隋唐 이후 발해 속지
『民國輝南縣志』	白純義 監修, 於鳳桐 等 纂	1927	1	발해 건국; 中京顯德府 속지

『民國輝南風土調查錄』	王瑞之 編	1919	2	발해 上京; 고구려 건물 유적; 유물(佛像)
『民國安圖縣志』	陳鴻謨, 馬空群, 陳國鈞 等修, 孔廣泉, 臧文源 纂	1929	0	
『光緒柳河縣鄉土志』	張翼廷, 張士達 修, 奎斌, 鄒銘勳 纂	1907	1	漢晉~隋唐 - 고구려 속지
『民國通化縣志』	李春雨, 李鎮華 修, 邵芳齡 等 纂	1927	7	唐 - 발해 속지; 유적-‘高麗城’; 大王碑(광개토왕비); 물산-부여의 馬; 백제의 牛, 巨栗; 발해의 梨; 田丘儉 및 隋唐 시기 고구려 정벌 - 압록강 이서 지역은 중국 영역임을 강조.
『宣統通化縣鄉土志』	潘德荃 修纂	1910	2	漢-현도군; 隋唐 이후-발해 속지; 기타-‘高麗菊’
『民國臨江縣志』	劉維清 監修, 張之言, 羅寶書, 邱在官 纂	1935	13	漢-현도군; 漢獻帝 시기-고구려 속지; 伊夷模 丸都 천도; ‘沸流谷’고증; 魏晉-관구 감, 慕容皝 고구려 정벌; 南北朝~隋唐-고구려 속지; 君子國 九夷 인식; 고구려 멸망 후, 한반도로 천도, 기타-漢조, 압록강을 ‘忽本江’으로 호칭; 기타 - ‘高麗溝’; ‘高麗城子’; 불교 전파; 魏, 隋唐 시기 고구려 정벌
『民國臨江縣鄉土志』	俞榮慶 編	1925	0	
『民國撫松縣志』	張元俊 修, 車煥文 纂	1930	1	지명 -‘高力溝’
『宣統西安縣志略』	雷飛鵬 修, 段盛梓 等 纂	1911	2	東漢~晉 - 부여 속지; 六朝~隋唐-고구려 북쪽 경계지대 (고구려 略史); 백제의 부여출자설
『光緒西安縣鄉土志』	孟憲彝, 金正元 編	1908	2	東漢~晉 - 부여 속지; 六朝~隋唐-고구려 북쪽 경계지대 (고구려 略史); 백제의 부여출자설
『光緒海龍府鄉土志』	海龍府勸學所 編	1907	0	
『民國海龍縣志』	白永貞 修纂	1913	2	고구려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 지명 - ‘高麗盤道溝’
『民國海龍縣志』	王永恩 修, 王春鵬 纂	1937	4	戰國~秦-扶餘 輝罕部 속지; 西漢-眞番 曷 樂浪 속지; 東漢~三國-沃沮 속지; 晉~南北朝-고구려 속지; 唐~五代- 발해 속지; 고구려 불교 전파; 유적 - ‘高麗國王之墳墓’, ‘高麗城’

『民國輯安縣志』	劉天成, 蘇顯揚 修, 張拱垣, 於雲峰 纂	1931	27	고조선(箕子); 漢 初 고구려 건립과 田丘 儉 정벌; 鴨綠江=溟水; 佟家江=沸流水; 國內城 修築; 國內城, 丸都城; 기타 - 山城子, 石頭城, 古城子, 土城子, 望波城, 東明王墓(장군총), 好太王墓(태왕릉), 五盔墳, 好太王碑(광개토왕비), 광개토왕비 비문 검토, 千秋墓, 고구려 略史, 불교전과
『光緒輯安縣鄉土志』	吳光國 修, 於會清 纂	1906	18	광개토왕비 비문, 魏書 高句麗傳, 東國通鑑 高句려건국신화, 高句麗碑(광개토왕비), 太王墓(태왕릉), 將軍墳(장군총), 五關墳(五盔墳), 關馬牆, 여러 山城 유적, 龍山, 沸流谷
『民國雙山縣志』	李筠生 修, 李安仁 纂	1933	0	
『民國雙山縣鄉土志』	牛爾裕 編	1914	0	
『光緒東平縣鄉土志』	趙國熙 編	1908	0	
『宣統奉天省靖安縣志』	朱佩蘭 修纂	1911	0	
『光緒靖安縣鄉土志』	張晉 修纂	1908	0	
『宣統長白彙徵錄』	張鳳台 等 修, 劉龍光, 王大經, 徐家馨 纂	1910	48	漢-樂浪郡 속지, 부여 건국 전승, 魏晉-沃沮 서부, 隋唐-발해 率濱部 益州 서남 경계지대, 金과 高麗의 국경문제, 虞夏 시기-不咸山; 漢代-單單大嶺; 元魏~南北朝-徒太山; 唐-太白山; 金-長白山, 衛滿朝鮮 溟水 위치, 衛滿朝鮮-부여-고구려-발해-고려에 이르는 역사 전개 略述, 고조선, 고구려, 발해와 중원 왕조의 전쟁사, 服色, 官名, 禮俗 등 문화 연관성, 광개토왕비 비문 검토
『民國懷德縣志』	李宴春 修, 趙晉臣, 孫雲章 纂	1929	5	後漢-부여 속지, 유적 -'新集城', 불교 전과
『光緒懷德縣鄉土志』	姚詩馨 修, 趙鑑清, 榮文昭, 孫雲章 纂	1908	3	후한-부여 속지, 발해-安邊府 소속, 유적 -'新集城'
『光緒懷德縣鄉土志續補』	孫雲章 編	1908	0	
『宣統遼源州志書』	趙炳南 修纂	1910	0	
『民國遼源縣鄉土志』	佚名	1915	0	
『光緒奉化縣志』	錢開震 修, 陳文焯 纂	1885	3	고대 천문학에서의 지역 구획 인식; 유적-고구려성, 고구려 墓地; 唐太宗의 고구려 정벌
『光緒奉化縣鄉土志』	陳嘉言 編	1908	1	고대 천문학에서의 지역 구획 인식
『民國梨樹縣志』	佚名	?	0	

『民國梨樹縣志』	包文俊 修, 李溶 纂, 曲廉本 續修, 範大全 續纂	1934	3	고조선 북부에 해당, 秦-濊貊의 땅, 晉~ 唐-고구려 속지; 유적-高麗墳
『民國奉天省洮安縣志略』	蔣國銓 修纂	1913	0	
『光緒開通縣鄉土志』	忠林 修纂	1907	0	
『民國東豐縣志』	邢麟章, 王瀛 傑 修, 李耦 纂	1931	1	曹魏-北沃沮 속지
『光緒洮南府鄉土志』	孫葆璋 修纂	1907	0	
『宣統安廣縣鄉土志』	張星楡 修纂	1911	1	漢~魏晉-부여 속지
『民國大齋縣志』	於英蕤 修纂	1913	0	
『民國鎮東縣志』	陳占甲 修, 周渭賢 纂	1927	0	
『光緒伯都訥鄉土志』	伯英 修纂	1891	0	
『民國扶餘縣志』	張其軍 修纂	1924	5	後漢-부여 중심지, 隋-고구려 북부; 유적- 高麗古城, ‘南城子’
총계			217	



〈그림 2〉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인 지역

4. 주목되는 내용 검토

1) 遼寧 지역

가. 地理考證

■ 東牟山의 위치 비정

- “東牟山今名天柱山，距縣治城東二十里，清太祖福陵在焉。按新舊唐書并云渤海大氏祚榮本粟末靺鞨，保挹婁之故地，據東牟山。”(『民國沈陽縣志』(遼寧府縣志輯1, p.184))

- “高句麗遺族大祚榮，於古挹婁之東牟山[相傳即瀋東之天柱山]，稱渤海王，置五京十五府六十二州。本境又復淪陷，渤海置富州屬懷遠府[府治不在境內]”(『民國鐵嶺縣志』(遼寧府縣志輯 11, p.12))

잘 알려지듯이, 東牟山은 大祚榮이 발해를 건국한 지역으로서, 그 위치 비정 문제를 놓고 여러 설들이 제기돼왔는데, 현재 敦化의 敖東山城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위의 문헌에 따르면 동모산은 현재 沈陽의 동쪽 20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 ‘天柱山’이라고 한다. 鐵嶺은 심양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유사한 전승이 있었거나, 혹은 동일한 원전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많다.

■ ‘新羅山’, ‘帶方山’

- “新羅山 通考新羅山西北界高句麗百濟之間。舊志新羅山南至奉天，即唐高麗界，今無考”(『民國沈陽縣志』(遼寧府縣志輯 1, p.184))

- “帶方山 漢書樂浪郡有帶方縣。通志三韓皆都帶方郡之東。隋書遼西郡有帶方山秃黎山鷄鳴山註即奉天府界內地，今不可考”(『民國沈陽縣志』(遼寧府縣志輯 1, p.184))

‘新羅山’, ‘帶方山’으로 불린 산이 지금의 심양 지역에 있다는 전승이 있으나, 고증하기 어렵다고 한 만큼, 저본이 있었던 것은 아닌 같다. 다만 그

러한 전승이 형성된 원인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蓋平지역이 辰韓의 땅이었다는 인식 및 그에 대한 비판.

—“蓋平，古辰韓之地……晉初因之，後爲高句驪所據，入隋而高麗始大號其地，爲蓋牟城。唐克之，始改爲蓋州，屬安東都護府。唐末渤海僭號改，置州郡，以其地本辰韓，改號曰辰州。”(『康熙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5))

—“三韓名稱考：……聖宗伐高麗，俘三國之遺人置縣。據此考之，係俘三國之人於高州，而仍取三韓之名，久之竟誤，以遼爲三韓地……蓋州地■渡沒入高句麗，遂誤爲韓也。惟邑中人士，恒於題跋，倉識著爲辰韓某■子樣殆，亦相習既久沿爲慣例耳”(『民國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61))

蓋平은 현재 蓋州市에 해당하는데, 고구려 蓋牟城 지역이기도 하다. 발해 시기에 이르러 ‘辰州’로 바꾸었는데, 원래 辰韓의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뒷부분에서 다시 이 전승을 검토하여 비판하고 있다. 즉 실제 진한의 땅이어서가 아니라, 遼代에 高麗를 침공하여 이른바 ‘三國’의 유민 혹은 ‘三韓’의 백성을 노획하여 이 지역에 안치하였는데, 그로 인해 왜곡인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 蓋州 지역이 高句麗에 점거되면서 韓의 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현지 지식인들에 의해 고착되었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蓋平縣志』가 찬술될 1930년 무렵, 현지 지식인들은 한반도 ‘三國, 三韓’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구려를 ‘韓’의 족속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 溟水 고증

—“淤泥河 城北五十里。按遼史，遼陽縣在漢溟水縣北。溟水亦曰泥河，一曰薜芋灤水，水多薜芋之草。明一統志從之，乃又以朝鮮大通河爲溟水，似兩溟水矣。今按淤泥河，源出海城界內之聖水山，流至迷真山西，散漫荒甸，則此河或即古之溟水。遼史之薜芋灤，而今淤塞，或朝鮮界內別有溟水，俱

不可考.”(『康熙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10))

한반도의 패수와 별도로 蓋平(蓋州)에서 북쪽 50리 떨어진 곳에 海城의 聖水山에서 발원된 ‘어니하’로 불린 패수가 있었는데, 이 강이 곧 옛 패수라고 한다. 또 조선경내의 ‘大通河’ 즉 大同江도 패수로 불리는데 어떤 것이 고대 패수인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현재 古朝鮮의 패수를 鴨綠江 혹은 淸川江에 비정하는데, 이와는 색다른 내용이다. 또 이 어니하는 고구려 정벌 당시 唐太宗의 말이 빠진 곳으로 유명한데, 관련 전승이 京劇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 ‘蓋牟城’의 ‘蓋’의 기원에 관해

—“蓋牟(攷漢書地理志曰, 西蓋馬又以爲蓋馬縣, 卽本境蓋字之緣起也)”(『民國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60))

고구려 ‘蓋牟城’의 ‘蓋’字가 현도군의 西蓋馬縣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 安市城의 위치

—“蓋牟又於東北六十里, 置安市城[卽今之湯池]”(『民國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60))

—“湯池堡 在城東北六十里, 週圍一百二十步, 卽古之安市縣. 西漢置, 晉廢縣. 高麗爲安市城. 在湯池後街, 尙存土城舊址”(『民國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74))

—“安市故城, 在今縣城東北七十里. 唐征高麗, 薛仁貴白衣登城, 卽此”(『光緒蓋平縣鄉土志』(遼寧府縣志輯 13, p.223))

『蓋平縣志』에 따르면, 개평에서 동북쪽으로 60리 떨어져 있는 ‘湯池’ 혹은 ‘湯池堡’로 불린 곳이라고 하며, 당시까지만 해도 토성 유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蓋平縣鄉土志』에서는 현성 동북쪽 70리 떨어진 지역에 安市故城이 있다고 했는데, 동일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상 이는

『遼史』地理志에 수록된 내용이기도 한데,⁹⁾ 현재 학계에서 海城市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茨城子山城을 안시성에 비정하고 있는데,¹⁰⁾ 위의 주장과 일치한다. 『我邦疆域考』 등에서는 ‘鳳凰城’에 비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연행기록을 토대로 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봉황산산성을 烏骨城으로 보고 있다.¹¹⁾

■ 백제의 遼西 점거

- “高句麗略有遼東, 百濟略有遼西”(『民國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62))
- “高麗百濟[乾隆盛京志, ■置沿革表案高麗略遼東. 百濟略遼西]”(『民國義縣志』(遼寧府縣志輯 21, p.1))
- “晉初高麗略遼東. 百濟略遼西. 後平二郡, 改遼東屬國”(『民國義縣志』(遼寧府縣志輯 21, p.17))

이는 『宋書』百濟傳 기록에서 비롯된 설이다.¹²⁾ 이 사료와 관련해, 일시적인 遼西지역 점거가 가능했다는 주장과, 기록상의 오류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확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어도 20세기 초, 요서지역에 해당하는 義縣지역 지식인들은 백제가 요서지역으로 진출해 있었다고 보고 있었던 것 같다.

■ 馬韓, 辰韓의 위치

- “岫巖在漢時, 當介馬辰兩韓之間, 而韓無所統地. 仍繫於郡縣”(『國民岫巖縣志』(遼寧府縣志輯 15, p.91))

漢대에 岫巖지역이 馬韓과 辰韓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 수암은 丹東의 서쪽, 蓋州의 동쪽에 있어, 기존의 삼한의 위치 인식과는 거리가 멀

9) 『遼史』卷38 地理志 “鐵州, 建武軍, 刺史. 本漢安市縣, 高麗爲安市城”

10)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12쪽.

11) 위의 책, 209쪽.

12) 『宋書』卷97 夷蠻 “百濟國, 本與高麗俱在遼東之東千餘里, 其後高麗略有遼東, 百濟略有遼西. 百濟所治, 謂之晉平郡晉平縣”

다. 앞서 살펴봤듯이, 개주지역이 곧 진한의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만큼, 그와 유사한 기원이나 계기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그에 비해, ‘漢時’라고 시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예맥 지역

- “歲卽濊貊今奉天府鳳凰城以東皆其地”(『民國安東縣志』(遼寧府縣志輯16, p.86))

- “濊貊卽今之海參(蔘)威, 與吉林之東北部, 倭卽日本之西部.”(『民國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61))

『安東縣志』저자는 ‘歲’와 ‘濊貊’을 동일한 실체로 인식하고 있으며,¹³⁾ 지금의 丹東 북부에 위치해 있는 鳳城의 동쪽지역, 즉 한반도지역을 예맥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蓋平縣志』저자는 濊貊에 대해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海蔘威), 길림성 동부 및 일본의 서부지역에 해당한다고 했다.

■ 後燕의 宿軍城

- “宿軍城 在營州東北, 後燕所置城也. 又爲平州治, 晉元興初, 高句驪攻宿軍, 平州刺史慕容歸棄城走. 慕容熙改置營州刺史, 鎮宿軍. 宿軍城在朝陽縣東北, 今無考”(『民國朝陽縣志』(遼寧府縣志輯 23, p.345))

宿軍城은 後燕의 중심지인 朝陽지역으로 통하는 요충지로서, 광개토왕시기 遼東 서부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우선 공략 대상이었다. 『朝陽縣志』에서 후연 시기 조양 동북지역에 숙군성이 위치해 있다고 했는데, 기존 숙군성 위치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13) ‘예’와 ‘예맥’의 실체와 관련해서, 同一說과 相異說로 나뉜다(송호정, 2007, 「高句麗의 族源과 濊貊」 『고구려연구』 27, 112~113쪽; 조우연, 2011, 「중국 학계의 ‘濊貊’ 연구 경향」 『동아시아고대학』 25, 298~302쪽)

■ ‘沃沮國’

－“縣城以東皆其故壤。考東漢書，沃沮，北與挹婁，南與濊貊接，在蓋馬大定東北[按漢之蓋馬即今蓋平縣]……[古沃沮國地]”(『民國海城縣志』(廷瑞，孫紹宗 修)(遼寧府縣志輯 5, p.301))

遼寧省 중부, 蓋州의 북쪽에 위치한 海城지역이 곧 고대 沃沮의 땅이라고 보고 있다.

나. 전승

■ 연개소문 전승

－蓋蘇屯 “城北三十里耿莊子原名蓋蘇屯，相傳高麗大將泉蓋蘇文居此”(『民國海城縣志』(廷瑞，孫紹宗 修)(遼寧府縣志輯 5, p.307))

海城에서 북쪽으로 30里 떨어진 지역에 ‘蓋蘇屯’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연개소문이 머문 곳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전한다.

－南城子 烽火臺 “官嶺村……有一形略小之臺，村人呼爲南城子，上有磚瓦散亂，傳爲薛仁貴征高麗時，蓋蘇文在此据守築此臺以縱烽火也。此說渺茫……明駐兵處”(『民國撫順縣志』(遼寧府縣志輯 7, p.11))

無順 官嶺村 지역에 작은 축대가 있는데, 지역민들은 이를 연개소문이 축조한 것이라고 전한다고 한다. 하지만 찬술자는 이 전승을 신뢰하기는 어려우며 혹 明代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蓋蘇文山 “在縣東南境小紅石村西北。土人相傳，唐太宗東征時，逐蓋蘇文於此山。”(『民國開原縣志』(遼寧府縣志輯 12, p.144))

요녕성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開原 동남쪽에 ‘개소문산’이 있는데, 현지인들이 전하기를, 당태종이 연개소문을 쫓아 이곳에 이르렀다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 七女墓 “在城南十里鳳凰山西南坡. 相傳蓋蘇文七姬及蘇文兵敗同時殉節”(『民國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75); “七女墓 在城南十里鳳凰山下, 相傳蓋蘇文七姬及蘇文兵, 敗同時殉節”(『民國蓋平縣鄉土志』(遼寧府縣志輯 13, p.315))

蓋平에서 남쪽으로 10리 떨어진 鳳凰山 남쪽 자락에 ‘七女墓’라는 곳이 있는데, 연개소문이 당태종에게 패하자 연개소문의 일곱 여식(혹은 첩실)이 함께 殉節하여 묻혔다고 전해진다.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왕이 아님에도 그 여식(혹은 첩실)을 ‘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蓋蘇貞 “靑石關 在城北十二里. 兩山壁立, 鑿石爲門, 爲北門營鑰. 相傳蓋蘇貞屯兵於此.”(『民國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74); 『民國蓋平縣鄉土志』(遼寧府縣志輯 13, p.315))

- 蓋蘇貞墓

“蓋蘇貞墓 在城北飛雲塞南山距城十里”(『民國蓋平縣鄉土志』(遼寧府縣志輯 13, p.315))

蓋平에서 북쪽 12리 떨어진 곳에 ‘靑石關’로 불리는 지역이 있다고 전하는데, 돌을 다듬어 만든 山城 유적으로 추정된다. 또 이곳에 ‘蓋蘇貞’이라는 인물의 군사가 머물렀다고 하는데, ‘개소문’의 誤記이거나, 그와 연관이 있는 인물인 것 같다. 또 개평지역에서 이 개소정이라는 인물의 葬地 전승도 확인되고 있다.

- ‘城兒山’ 山城 碑文 “城兒山 城西南二百里, 東西兩山, 壁立如牆, 高峻陡險, 中夾一溪. 自北而南入碧河, 東山之背, 稍平坦, 有盤道可通, 上有古城. 橫跨山脊, 東南兩門旁, 有高臺, 城內石壘無數. 東門外一碑, 半沒草萊中, 字跡漶漫, 僅餘‘將軍’二字. 相傳爲蓋蘇文之遺云”(『咸豐岫巖志略』(遼寧府縣志輯 15, p.11))

岫巖에서 서남쪽으로 200리 떨어진 城兒山에 石築 古城 유적이 있는데,

그 東門 밖에 비문이 있는 비석이 있고, ‘將軍’이라는 두 글자만 확인된다고 한다. 이 비석은 연개소문이 남긴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수암에서 서남 쪽으로 200리 떨어진 지역이면 개평일대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앞의 개평 지역에서 연개소문 관련 전승이 확인된다는 점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娘娘墳’-연개소문의 누이 蓋蘇珍 “娘娘城 在邑之東南，距城十八里，有娘娘城山。山上有城一座。土人呼曰娘娘城。城係石砌，周圍約數里。昔時牆甚高，現已傾圮高處尚有七尺餘。城門四礮台四，均坍塌不堪。又有娘娘廟一，所建築年月無考。又有古墓一，鄉人稱爲娘娘墳。相傳唐時東征高麗，此城爲蓋蘇文之妹蓋蘇珍所建。墳卽蓋蘇珍之遺跡云”(『岫巖縣志』(遼寧府縣志輯 15, p.121))

岫巖에서 동남쪽으로 18리 떨어진 곳에 현지인들에 의해 ‘娘娘城’으로 불린 山城이 있는데, 麗-唐 전쟁 당시 연개소문의 누이 蓋蘇珍이 축조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또 그 곳에 개소진의 무덤도 있다고 한다. 이 ‘개소진’이 앞에 개평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개소정’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鳳遑門’ “相傳唐貞觀時，高麗莫離支蓋蘇文等，築門二，曰鳳遑門，曰■陽門。今並■■邊門爲安鳳城路停車場，改名高麗門”(『民國鳳城縣志』(遼寧府縣志輯 14, pp.118~119))

鳳城縣 성문을 연개소문이 축조했다고 전해지는데, 『鳳城縣志』가 찬술될 무렵에 ‘高麗門’으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城兒山’ “城兒山 城西九十里，有城兒山。相傳高麗於此築城，高麗叛臣蓋蘇文，依此城之險，復加修築。唐主命李世勣，率薛仁貴等，討滅之。今過其地城牆，猶有重修之跡，南北兩山對峙，中間一河，南曰前城，北曰後城，蓋蘇文曾於兩山中間，築石橋架空，而行未成而滅前城。又有點將台梳粧樓水牢坐纛旗。至今宛然在目堅固如故云。”(『民國壯河縣志』(遼寧府縣

志輯 14, pp.312~313))

壯河는 遼東半島의 동북 해안지대에 위치해 있다. 고구려에서 壯河에서 서쪽으로 90리 떨어진 城兒山에 城을 축조했는데, 연개소문이 다시 고쳐 쌓았으며, 이 성의 험준함에 의지하여 당나라 군사에 대항했다고 전한다. 이 산성은 곧 지금의 城山山城을 말하는데, 둘레가 5천 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고구려 산성으로서, 연개소문과의 연관성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서부 방어 시설이었다는 점만은 틀림없다.¹⁴⁾

■ 唐太宗, 薛仁貴 전승

- “淤泥河……相傳唐太宗征遼，陷馬處”(『康熙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10))

- “窪泥塘 在城北五十里，爲淤泥河宣洩之處。相傳唐太宗溺馬於此。”；“淤泥河 在城北五十里。隨海潮爲漲落。相傳唐薛仁貴救駕處也”(『民國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76))

蓋平에서 북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窪泥塘’이라는 습지가 있어 당태종의 말이 빠졌다고 전해지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淤泥河의 한 구간일 것으로 짐작된다.

- “刺溝 在縣城東南六十里，有一種棘樹，其刺直銳無倒鉤。相傳唐太宗征東，至此龍袍爲所掛破”(『民國復縣志略』(遼寧府縣志輯 13, p.494))

復縣은 개평의 남쪽, 大連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복현 동남쪽 60리 떨어진 곳에 ‘刺溝’라는 지역이 있는데, 고구려 정벌에 나선 당태종이 이곳에 이르러 옷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졌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 ‘唐帽山’ “唐帽山 在邑正北七八(里)，兩區分界處。山勢高峻，而北向巖谷深邃，山頂高凸如巾幘故名。相傳唐太宗征高麗時，曾遺帽於此山，卽因之

14) 王綿厚, 2002, 앞의 책, 90~91쪽.

命名”(『國民岫巖縣志』(遼寧府縣志輯 15, pp.122~123))

수암 북쪽 7,8리 떨어진 곳에 ‘唐帽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당태종이 이곳에서 모자를 분실하였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坂倒井 坂倒井村在縣城東南六十里，村東有井一，穴洞敬斜，水向外流，故名。相傳，唐太宗征高麗，至此欲飲馬以汲水”(『民國復縣志略』(遼寧府縣志輯 13, p.494))

復縣에서 동남쪽으로 60리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어, 당나라 군사가 이곳에서 식수를 補給받았다고 전한다.

—“熊山城 通志謂，唐太宗征高麗，駐蹕於此”(『民國鳳城縣志』(遼寧府縣志輯 14, p.118))

鳳城지역에 ‘熊山城’으로 불린 산성유적이 있는데,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 도중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歇馬山” “城北五十里曰歇馬山[相傳唐征高麗，薛仁貴曾在此山歇馬，故名]”(『民國壯河縣志』(遼寧府縣志輯 14, p.228))

—“唐太宗征高麗，薛仁貴曾在該處歇馬，故山因以命名”(『民國壯河縣志』(遼寧府縣志輯 14, p.316))

壯河縣에서 북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歇馬山’이 있는데, 당태종과 설인귀가 이곳에서 쉬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玄羊山” “玄羊山爲羊山鎮之北壁，南臨小凌河。相傳，唐將薛仁貴征高麗時，曾駐焉。”(『民國朝陽縣志』(遼寧府縣志輯 23, p.361))

朝陽의 羊山鎮 북쪽 小凌河 북안에 玄羊山이 있는데, 설인귀가 머물렀다고 전한다.

一 ‘誓臺’, ‘唐壘’ “唐壘[城東南三十二里. 唐太宗征高麗駐兵於此. 今名高麗坂]”(『康熙錦州府志』(遼寧府縣志輯 16, p.316))

“唐壘 [城東南三十二里. 唐太宗征高麗, 駐兵於蛇今名高麗城”(『康熙廣寧縣志』遼寧府縣志輯 21, p.274))

“誓臺 唐太宗征高麗, 築以誓師. 相傳, 在城東三十里”(『民國北鎮縣志』(遼寧府縣志輯 22 p.47))

“唐壘 唐太宗征高麗, 駐兵之所. 按明一統志, 在今城東南三十里”(『民國北鎮縣志』(遼寧府縣志輯 22 p.49))

요녕성 서부지역에 해당하는 錦州, 廣寧(지금의 北鎮에 통합), 北鎮 지역에 ‘誓臺’, ‘唐壘’로 불리는 지명이 다수 확인되는데, 고구려 정벌에 나선 唐의 군사가 머물렀다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이들 지역은 遼西에 해당하며, 본격 고구려 진격에 앞서 이곳에서 軍禮를 행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군사를 정돈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고구려 건국신화

一 “南北朝屬扶餘 夫餘王嘗得河伯女, 因閉於室內, 爲日光隨而照之, 感而遂孕, 生一大卵, 有一男子破殼而出, 名曰朱蒙. 夫餘之臣咸請殺之, 其母以告朱蒙, 東南走, 遇一大水. 朱蒙曰, 我是河伯外孫, 日之子也. 今有難, 而追兵且及, 如何得渡. 於是魚鱉積而成橋, 遂得渡乃建國, 號曰高句麗. 據此, 縣地仍屬扶餘, 位置常在高句麗西北”(『民國西豐縣志』(遼寧府縣志輯 12, p.427))

西豐은 요녕성 북부, 길림성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부여의 중심으로 알려지고 있는 길림성 農安에서 동남쪽으로 桓仁지역에 이르는 중간 지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朱蒙의 부여 탈출 경로 상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어, 고구려건국신화를 수록했던 것 같다. 다만 중국 正史에 수록되어 있는 고구려시조신화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 藁離國의 위치와 관련된 단서

- “遼以東則舜之營州矣. 營州爲三韓舊地, 三韓者, 馬韓辰韓弁韓也. 又考唐書天文志, 箕與南斗相近, 盡三韓地. 昌圖之地, 雖非三韓而藁離國之鳳州, 亦與三韓接壤, 如是則昌圖之分野.”(『民國昌圖縣志』(遼寧府縣志輯 10, p.460))

昌圖 지역이 三韓의 땅과 접해 있으며, 藁離國의 鳳州에 속해있었다고 한다. 이른바 ‘고리국’은 부여 시조 동명이 出自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다. 현재 창도현은 요녕성 북부, 즉 부여의 중심으로 알려진 농안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 지역을 고리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昌圖縣志』 찬술자가 어떠한 저본이나 전승에 근거하여 기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藁離國’ 혹은 ‘蒙離國’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遼代 黃龍府 기원 전승

- “古黃龍府 卽扶餘府. 遼太祖平渤海, 還至此, 有黃龍見, 更名龍州黃龍府”(『康熙開原縣志』(遼寧府縣志輯 12, p.73))
- “遼史本紀, 太祖平渤海, 次扶餘城, 有黃龍見於城上, 改名黃龍府”(『民國開原縣志』(遼寧府縣志輯 12, pp.94~95))

이상의 西豊, 昌圖, 開原은 요녕성 북부, 길림성 접경지대에 해당하는데, 이들 지역에서 부여 관련 전승이 일부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부여와 연관이 있는 지역임을 시사해준다.

■ 高麗城의 솥[鍋]에 관한 전승

- “嵌石嶺在城北百里……上有舊城基, 嵌石就頽俗呼曰高麗城, 中有一鍋, 大而覆, 鍋內緊鉞鎖一條, 掀之不動, 人於無意之中有時或可掀起鎖, 可提出數尺倒手復入濃霧中, 時聞嶺上有鼓樂城聲, 前數年有石匠某, 欲刨鍋以驗其異, 施斧鑿爲石傷目, 此後鍋遂不見, 鼓樂之聲, 亦寂然無聞”(『宣

統懷仁縣志』(遼寧府縣志輯 9, p.30))

환인에서 북쪽으로 백리 떨어져 있는 嵌石嶺에 고구려 성터가 있어, 그곳에 커다란 솔이 하나 있었는데, 가끔씩 성중에서 鼓樂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 후, 한 石工이 이를 검증하기 위해 솔을 도끼로 깨뜨리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다. 기타

■ 동명왕 관련 유적

- 東明王墓 “全遼志云, 在遼陽東30里”(『民國遼陽縣志』(遼寧府縣志輯 2, p.374))

遼陽에서 동쪽으로 30里 떨어진 곳에 ‘東明王墓’로 전해지는 고분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遼陽縣志』저자는 이를 터무니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요양은 곧 고구려의 遼東城으로서, 광개토왕시기에 이르러서야 고구려로 편입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조의 무덤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으나, 다만 요동성에 주몽사당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¹⁵⁾ 시조 제사시설이 있었고, 그 유적이 ‘동명왕묘’로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고구려왕자 ‘동명’의 묘 혹은 ‘東明太子陵(東明王墓)’

“東明王墓 按明一統志, 在復州衛東十里, 有明山, 高句麗王之子曰東明, 葬其山. 今復州東二十里, 有東屏山, 墓湮沒無考”(『康熙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20))

“東屏山 城東二千里. 山形環列如屏陣因名, 頂平敞, 上有古井一, 又名明山. 明一統志云, 明山在復州衛東十里, 高麗王有子曰東明, 葬其上. 明屏音近, 疑卽此山也”(『民國復縣志略』(遼寧府縣志輯 13, p.372))

“東明太子陵 明一統志載, 城東十里, 有明山, 高句麗王之子曰東明, 葬其上. 今墓址無考, 疑卽城東二十里之東屏山[通志作東明王墓]”(『民國復縣

15)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第9, 寶藏王4年 “李世勣攻遼東城……城有朱蒙祠”

志略』(遼寧府縣志輯 13, p.494)

“訪東明王墓[明一統志, 復州衛東十里, 有明山. 高句麗王之子曰東明, 葬其上. 今城東二十里有東屏山, 疑即其地墓煙沒無考]”(『民國復縣志略』(遼寧府縣志輯 13, p.537))

復縣은 요동반도 중서부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의 瓦房店市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동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東屏山(東明山)’이 있어, 그 곳에 고구려 왕자라 동명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 유적을 확인 할 수 없다고 한다.

- 동명왕후손 “(발해 출신)張浩, 東明王之後”(『民國遼陽縣志』(遼寧府縣志輯 2, p.434))

渤海 출신의 張浩가 동명왕의 후손임을 표방하고 있는데, 고구려 시조와 가문의 혈연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요동성 朱蒙祠에 봉안된 武具

- “北燕 有鑲甲自天落城東”(『民國遼陽縣志』(遼寧府縣志輯 2, p.91))

『삼국사기』보장왕조의 “妄言前燕世天所降”이라는 기록에 비해 ‘城東’이라 하여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고 있다.

■ 불교 전파

- “高麗据遼東佛教遂入遼東, 高麗僧一然其最著也”(『民國撫順縣志』(遼寧府縣志輯 7, p.62))

불교의 요동 전파와 관련하여 고구려를 언급하면서 一然이 가장 유명한 高麗의 승려라고 하고 있다.

■ 箕子朝鮮 건국

- “箕子孫始遷平壤爲朝鮮開國之祖” 『宣統懷仁縣志』(遼寧府縣志輯 9,

p.6); 『民國桓仁縣志』(遼寧府縣志輯 9, p.104)

기자의 손자가 平壤으로 옮겨 조선의 건국 시조가 되었다고 전한다. 기자의 건국지점과 관련해서 ‘遼西說’, ‘平壤說’ 및 ‘移動說’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¹⁶⁾ 『桓仁縣志』 저자는 이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기자가 아닌, 그 손자가 평양에서 ‘조선’을 처음 건국하였다고 하여 기자조선의 건국 인물과 지점을 달리 이해하고 있다.

■ 고구려 멸망 이후 종적

- “高驪徙國鴨綠江東南千餘” 『宣統懷仁縣志』(遼寧府縣志輯 9, p.7); 『民國桓仁縣志』(遼寧府縣志輯 9, p.105))

『桓仁縣志』저자는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옮겨 지속적으로 존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중국학자들이 고구려 귀속문제를 언급하면서 고구려 지배층과 유민 대부분이 중국 내륙지역으로 옮겨졌음을 주장하는 것과¹⁷⁾ 사뭇 다른 인식이다.

■ 대조영과 고구려의 관계에 대한 단서

- “高句麗遺族大祚榮於古挹婁之東牟山”(『民國鐵嶺縣志』(遼寧府縣志輯 11, p.12))

- “唐命李楷固擊之. 大祚榮率高麗靺鞨之兵, 拒楷固, 楷固敗還”(『民國鐵嶺縣志』(遼寧府縣志輯 11 p.64))

大祚榮의 출신과 관련해서 正史에서는 대개 ‘別種’이라고 기록한 경우가 많은데,¹⁸⁾ 그와 달리, ‘高句麗 遺族’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 “渤海仍蓋州也. 後又改爲辰州[以辰韓得名], 五代時, 復屬高句麗,”(『民

16) 篠原啓方, 2008, 「중국 학계의 韓國上古史 인식」 『선사와 고대』 29, 67~71쪽.

17) 孫進己, 2001, 「當前研究高句麗歸屬的幾個問題」 『東疆學刊』 2001年3期, 23쪽; 馬大正 等, 2001,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 黑龍江教育出版社, 50~64쪽.

18) 『舊唐書』卷199 列傳 北狄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國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60))

蓋州 지역을 발해시기에 진주로 바꾸었고, 五代시기에 이르러 다시 ‘高句麗’로 편입된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보아, 高麗일 가능성도 있으나, 거란 흥기에 앞서 고려가 개주지역으로 진출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高麗營’

—“高麗營 車廠之東, 有八岔溝. 溝北土阜■起高約一丈, 上有古蹟, ■圓錢以石灰砌墳之磚, 皆刻花鳥紋, 附近之地, 曾發見高麗古錢甚多. 相傳爲高麗王侯之墓云”(『民國復縣志略』(遼寧府縣志輯 13, p.495))

復縣 즉 지금의 瓦房店市 지역에 ‘高麗營’으로 불린 곳이 있었으며, 거기에 유적 유물들이 다수 존재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유적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高麗古錢’인데, 고구려 시기 금속화폐가 존재했다는 문헌이나 실물 자료가 全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혹시 東國通寶와 같은 高麗시대 금속화폐일 가능성도 있으나, 확단하기는 어렵다.

■ 고구려 후손 인식

—“高麗係 自唐征高麗後邑境尙遺有高麗人民數家. 今之朴姓純係高麗苗裔.”(『國民岫巖縣志』(遼寧府縣志輯 15, p.364))

朴氏를 고구려 후손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반도 移住民과 고구려를 동일한 족속으로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

■ ‘三韓’

—“三韓縣 [辰韓爲扶餘, 弁韓爲新羅, 馬韓爲高麗. 開泰中, 聖宗伐高麗, 俘三地之遺人, 置縣, 戶二千.] 攷三韓之名, 始見於後漢書, 謂有七十八國. 熱河志謂, 三韓縣爲三韓遷置, 故名是也. 武經總要云, 高州契丹收新羅諸國俘虜人民, 置州以居之, 置倚郭一縣, 以三韓爲名.”(『民國建平縣志』遼寧府縣志輯 22 pp.234~235))

—“遼以東則舜之營州矣。營州爲三韓舊地，三韓者，馬韓辰韓弁韓也。”(『民國昌圖縣志』(遼寧府縣志輯 10, p.460))

요녕성 지역에 三韓과 관련된 인식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遼 성종의 고려 침공 및 포로 안치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 遼河명칭에 관한 언급

—“清盛京通志，遼河國語曰老哈，即古句驪河也。一名拘柳河，柳河合流之處，今名巨流河”(『民國開原縣志』(遼寧府縣志輯 12, p.116))

■ 유적·유물

—“高句麗石造像記：宣統三年，日本軍人獲一像，去現只顯其五細視刀工衣紋字體，皆古拙可愛……以歷代沿革攷之，此石當在晉隋之間，細審其文字筆畫。又與所見，諸金石不同，信爲高句驪之物，蓋無疑，年代二字模糊，不能■實自慙孤陋矣”(『民國蓋平縣志』(遼寧府縣志輯 13, p.202))

宣統3年(1911)에 일본 군인이 蓋平지역에서 文字銘 石製 조각상(불상으로 추정)을 얻었는데, 고구려시기 것으로 짐작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확단 하기는 어려우나, 고구려 蓋牟城 지역에 불교사원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石佛’ “石佛 城北歇馬山之陽，有石佛三尊。高有八尺，並無廟宇。相傳唐時建立，唐太宗征高麗，薛仁貴曾在該處歇馬，故山因以命名”(『民國壯河縣志』(遼寧府縣志輯 14, p.316))

—“玄羊山爲羊山鎮之北壁，南臨小凌河……數年前，近山人鋤田，曾得銅印一顆，係高麗軍將之印”(『民國朝陽縣志』(遼寧府縣志輯 23, p.361))

壯河에 설인귀가 고구려 정벌 도중에 머물렀다고 하는 ‘歇馬山’이 있는데, 그 곳에서 석제 불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 朝陽市 남쪽에 위치해 있는 羊山鎮 지역에서 고구려 장수의 印章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한다. 이

지역은 遼西지역에 해당하는데, 고구려가 요동 점거뿐만 아니라, 요서지역에까지 진출해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2) 吉林 지역

가. 地理考證

■ 고구려의 夫餘城, 南蘇城 위치

“按吉林通志, 夫餘今農安縣, 南蘇今伊通州[以南蘇水得名]”(『民國農安縣志』(吉林府縣志輯 2, p.11))

부여성과 남소성은 고구려 서쪽의 중요 거점으로서, 그 위치에 대한 인식은 지금의 것과 다르지 않다.

■ ‘沸流谷’의 위치

—“按漢獻帝建安中, 高句麗王名伊夷模者, 別營新都於丸都山下, 考丸都山在沸流谷以西, 蓋沸流谷即今輯安縣所屬之通溝地面也”(『民國臨江縣志』(吉林府縣志輯 5, p.113))

—“在城北二十里, 小青溝里有水如沸, 古碑有云於沸流谷城西山上而建都焉, 蓋謂此谷”(『光緒輯安縣鄉土志』(吉林府縣志輯7, p.306))

—“沸流谷 [魏書普述水即此水, 今爲開原河上流, 卽葉赫河]”(『宣統長白彙徵錄志』(吉林府縣志輯 8, p.346))

‘沸流谷’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지역으로, 현재 桓仁의 五女山城 지역일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위의 자료들에서는 고구려 두 번째 도읍인 集安지역으로 보거나, 吉林省 서남부에 위치한 四平市 梨樹縣 경내의 葉赫河로 보고 있다.

■ 蓋馬大山 위치

“蓋馬大山[此山在今韓國咸鏡南道界內]”(『宣統長白彙徵錄志』(吉林府縣志

輯 8, p.37))

■ 溟水 위치

“(衛)滿乃東渡遼塞，置吏築障，役屬眞番朝鮮各君長，主盟海外，以遼東溟水 [在今海城蓋平地方]爲界，遂成獨立之國，東北邊割據之勢實始於此”(『宣統長白彙徵錄志』(吉林府縣志輯 8, p.106))

앞에서 살펴본 『蓋平縣志』와 마찬가지로, 패수의 위치를 요동반도 서북부의 蓋平(蓋州) 지역으로 보고 있다.

■ 忽本 위치

“忽本西城 [魏書作紇升骨城，周書作紇斗骨城，在今海龍府境內，土人通稱高句驪城]”(『宣統長白彙徵錄志』(吉林府縣志輯 8, p.346))

‘忽本’은 고구려 건국지로서, 마땅히 桓仁 인근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위의 기사에서는 海龍府 경내, 즉 지금의 集安市 북쪽에 위치해 있는 柳河縣, 東豐縣 일대에 해당한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高句麗城’으로 불린 홀본 유적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기록 당시 고구려 건국에 관한 현지인들의 인식을 전해주고 있다.

■ ‘鹽水’ 위치

“遊觀土境田■而還[鹽水卽鹽難水，今名修佳江，一名渾江，在今輯安縣西南入鴨綠江……]”(『宣統長白彙徵錄志』(吉林府縣志輯 8, p.347))

염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渾河(小遼水)설, 太子河 상류 설, 遼河 상류의 鹽湖 일대 설 등이 있는데, 위의 기록에서는 광개토태왕비 비문의 ‘鹽水’에 주석을 붙여 곧 ‘鹽難水’이며, 지금의 修佳江 즉, 渾江이라고 보고 있다.

나. 전승

■ ‘將軍墳(장군총)’에 관한 傳聞

“治城東十三里有古墓，一俗呼爲將軍墳，不知修於何代，亦未詳其姓氏，惟相傳爲高麗墓。唐高宗征高麗時，拔平壤，其國東徙距鴨綠江千餘里，遂爲荒徼。及道光年間流民私渡邊開墾者日多一日，適有石工二，將墓南面第四層杜門之巨石鑿開，石室中近北壁有石椁一，金製供器五件，常明燈一盞置諸其上，鑿開時燈猶未熄，此物咸爲石工所得……地板上有石隙，以小石投之，丁東有聲良久方息。”(『民國輯安縣志』(吉林府縣志輯7, p.47))

道光연간(1821~1850)에 현지 石工들이 장군총을 도굴하여 金製 祭器 다섯 점과 常明燈 한 점을 얻었다고 하는데, 墓室에 들어갔을 당시 燈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고 전한다. 또 묘실 바닥의 틈사이로 돌을 던져보았는데, 소리가 한 동안 울리고 나서야 멈추었다고 한다. 이러한 傳聞의 진실성 여부는 알 수 없으나, 『輯安縣志』를 찬술할 당시까지만 해도 현지인들 사이에서 고구려 유적에 관한 다양한 풍문들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 같다.

■ ‘好太王墓(태왕릉)’에 관한 傳聞

“好太王墓 在城東九里好太王碑西約二百步，福壽宮之右，高大宛如山陵，規模宏壯大於將軍墳一倍強第以距城密■設治之始建築房屋者，多取石於此，以致損壞崩頽，不復存當年之原狀曾有在墓旁掘得古碑一[今藏城內徐氏家]. 長一尺寬五寸厚八分，面有文曰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願字不見，字典不知，爲何字]. 相傳卽好太王墓以前有碑可證也. 此好太王在位，征百濟，伐新羅，破倭兵，懾夫餘。”(『民國輯安縣志』(吉林府縣志輯7, p.48))

‘願’자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해, 字典에서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저자가 실물을 확인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전해지는바에 따르면 태왕릉에 묘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문자명 碑石으로 미루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

다. 기타

■ 고구려 東盟祭 명칭

“十月祭天大會名曰賽盟”(『民國農安縣志』(吉林府縣志輯 2, p.256))

고구려 東盟祭에 관한 기록은 『三國志』에 가장 일찍 등장하는데, 그 후 대 문헌에서 다수 확인된다. 다만 ‘동맹’을 『梁書』에서는 ‘東明’이라고 했고,¹⁹⁾ 『通典』에서는 ‘寒盟’이라고 했다.²⁰⁾ 『農安縣志』에서는 ‘賽盟’이라고 했는데, 『통전』의 기록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誤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발해가 독자적인 고대국가였다는 인식

“唐滅高句麗而渤海興， 爲東海獨立之強國”(『民國延吉縣志』(吉林府縣志輯 2, p.380))

‘獨立’이라는 표현이 주목되는데, 『연길현지』가 편찬된 1914년 무렵 만주 지역 지식인들의 발해에 대한 인식을 단편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학자들이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짓는 것과 대조적인데, 이는 전통시대 보편적인 인식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 부여 풍속에 豕를 선호

“夫餘好養豕， 食其肉衣其皮”(『民國長春縣志』(吉林府縣志輯 1, p.144))

■ 부여 종족을 貉의 족속으로 이해

“夫餘族實屬古之貉種(一作貊)， 又謂與濊貉同爲一族， 亦即高句麗， 百濟二國所出自也”(『民國長春縣志』(吉林府縣志輯 1, p.321))

현재 학계에서 예, 맥, 예맥의 실체를 놓고 논쟁이 있는데, 대개는 『三國志』 夫餘條에 수록된 ‘濊王之印’, ‘濊城’²¹⁾ 등 문구에 착안하여 ‘南貊北濊’

19) 『梁書』 卷54 諸夷傳 高句麗 “以十月祭天大會名曰東明”

20) 『通典』 卷186 邊防2 高句麗 “以十月祭天大會名曰寒盟”

21)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夫餘條 “今天餘庫有玉璧珪瓚數代之物……其印文言濊王之印， 國有故城名濊城”

즉 남쪽의 고구려를 맥족, 북쪽의 부여를 濊族으로 보거나,²²⁾ 예맥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있어도 단독으로 맥족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드물다.

■ 고구려 창고시설로 추정되는 유적

“傳爲故宮基址，城內放有大石■數個，土人咸稱爲當年高麗■米之物”(『民國輝南風土調查錄』(吉林府縣志輯 4, p.17))

輝南은 지금의 通化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에 고구려 궁성 유적 내에 양식 창고 기초시설로 추정되는 유구가 있었다고 전한다.

■ 고구려 시기 것으로 추정되는 佛像

“城東六十里，大北岔溝四方頂子有地名佛堂山，上有廟二座，道士某前數年在大樹根下掘出銅佛銅器具甚多，同質堅美，古色斑斕，惜無碑碣可考，不知爲何代物，看其形式似爲高麗古物”(『民國輝南風土調查錄』(吉林府縣志輯 4, p.17))

輝南 縣城에서 동쪽으로 60리 떨어진 佛堂山이라는 곳에 廟가 두 군데 있는데, 그 곳에 거주하는 道士가 나무아래에서 銅佛像과 銅器 다수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文字銘이 없어,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알 수 없으나, 고구려 시기 유물로 짐작된다고 한다.

■ 고구려의 한반도 이전

“遣李勣大敗高麗於平壤旋滅之，置安東都護府以薛仁貴鎮撫之，高麗遷於鴨綠江東南千餘里而都焉”(『民國臨江縣志』(吉林府縣志輯 5, p.116))

고구려가 唐에 패해 동남쪽으로 한반도에 이전했다고 하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桓仁縣志』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아마 환인현과 임강현이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어 두 지역 지식인들이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

22) 芮逸夫, 1955, 『韓國古代民族考略』 『中韓文化論集』, 40~46쪽; 佟冬, 1987, 『中國東北史』, 吉林文史出版社, 170~173쪽.

일 것이다.

■ 압록강 명칭

“據滿洲地理志云，鴨江在周秦以前無所考，漢初定名爲忽本江，俗稱鴨綠江”(『民國臨江縣志』(吉林府縣志輯 5, p.125))

漢 초기 압록강의 정식 명칭은 ‘忽本江’이고 ‘鴨綠江’은 俗稱이었다고 하는데, 그 출전으로 밝힌 『滿洲地理志』의 실체는 알 수 없다. ‘忽本’은 광개토왕비 비문에서도 확인되는데,²³⁾ 주몽이 북부여에서 남하하여 고구려를 건국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른바 ‘홀본강’이란 환인의 渾江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는데, 혼강이 압록강의 지류임을 감안하면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다.

■ 고구려를 ‘조선’으로 인식

“高麗城 由來傳說 - 考高麗城之由來，乃係唐代薛仁貴將軍討伐朝鮮遺之城，迄今約千四百餘年矣”(『民國海龍縣志』(吉林府縣志輯 6, p.583))

海龍지역의 ‘高麗城’으로 불린 유적지와 관련해 설인귀가 ‘朝鮮’을 정벌할 당시 것이라고 표현했다. 즉 ‘고구려’와 ‘조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당시 현지 지식인들의 고구려인식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 丸都城을 朱蒙이 도읍한 것으로 인식

“丸都城 在縣北十里丸都山上，卽古高句麗始祖朱蒙所建都也”(『民國輯安縣志』(吉林府縣志輯7, p.45))

앞에서 살펴봤듯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沸流谷’이나 ‘忽本’을 集安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瑠璃王 시기 국내성으로 천도하여 처음으로 쌓은 丸都城²⁴⁾을 주몽 시기의 것으로 보고 있다.

23) 『廣開土王碑碑文』 “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

24)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第1 瑠璃明王 22年 “王遷都於國內，築尉那巖城”

■ ‘將軍墳’ -東明王墓

“治城東十三里有古墓，一俗呼爲將軍墳，不知修於何代，亦未詳其姓氏，惟相傳爲高麗墓……東國通鑑云，高句麗王朱蒙薨，太子類利立葬始祖於龍山，號東明聖王[墓西好太王碑亦載朱蒙事，惟未言及碑]。又云，平安道中和郡東明王墓在龍山，號珍珠墓，或疑卽此嗟乎。”(『民國輯安縣志』(吉林府縣志輯7, pp.46~47))

집안현성에서 동쪽으로 13리 떨어진 곳에 ‘將軍墳(장군총)’으로 불리는 고구려 고분이 있다고 하면서, 아마 동명왕의 무덤일 것이라고 한다. 잘 알려지듯이, 장군총은 장수왕 혹은 광개토왕의 능으로 비정되고 있는데, 위에서와 같은 인식은 앞의 여러 기사와 마찬가지로 주몽의 건국지를 집안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 인식

“夫餘王金蛙無嗣，禱於太白山[卽長白山]，而侍婢吞卵，生子於鴨綠室中，曰朱象，以善射名以弓矢。刀矛爲軍器，英武絕倫，國人畏而服之，遂王夫餘易國號曰高句驪，而夫餘微矣。”(『宣統長白集徵錄志』(吉林府縣志輯 8, p.107))

고구려 건국신화를 전하고 있는데, 주몽을 卵生이 아닌,²⁵⁾ 卵을 삼키고 낳은 胎生으로 기술하고 있어, 『論衡』의 부여시조인 東明神話와 유사한 형태이다.²⁶⁾ 이러한 전승의 원전을 알 수 없는데, 아마 저자가 부여시조신화와 고구려건국신화를 혼돈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이 기사에서는 주몽이 부여를 탈출하여 고구려를 건국 한 것이 아닌, 부여왕이 되어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었다고 전하는데, 앞선 시기 문헌에서 이러한 전승을 찾아 볼 수 없다.

25) 『廣開土王碑碑文』“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魏書』卷100 高句麗 “生一卵……有一男破殼而出”；『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第1 東明聖王 “生一卵……有一男兒，破殼而出”

26) 『論衡』吉驗篇 “有氣大如鷄子從天而下，我故有娠，後生子”

■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관계 및 고구려사 인식

“廣開境土好大王，天生神武，赫怒興師，又東夷之錚錚佼佼者也。新羅百濟三韓皆其甥舅兄弟之邦畏威皆力皆俯首於高勾驥之庭，於此時也。”(『宣統長白彙徵錄志』(吉林府縣志輯 8, p.107))

“此碑可補朝鮮史之缺，碑立於百濟新羅高句麗三國鼎立之時”(『宣統長白彙徵錄志』(吉林府縣志輯 8, p.359))

광개토왕을 언급하면서 고구려를 ‘東夷’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평가하고, 또 신라와 백제 등 三韓과 ‘甥舅兄弟’의 나라라고 하고 있다. 즉, 근대 만주 지역 지식인들은 고구려에 백제, 신라의 형제국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근대에 갑작스레 형성된 인식이라기보다는 그에 앞선 전통시대 인식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그에 비해 현재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는 ‘지방소수민족정권’론은 전통 인식과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광개토왕비의 입비 연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병립한 삼국시대이며, 비문은 ‘朝鮮史’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를 한국사의 범주로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고조선, 부여, 신라, 백제 문화의 계승 인식

- “東山服製，承百濟新羅之舊，尙白尙素尙潔”(『宣統長白彙徵錄志』(吉林府縣志輯 8, p.151))

- “按朝鮮承箕子遺教，俗尙白，夫餘百濟新羅時代此俗未革，金遼以後稍趨浮華，而朝鮮人如故也”(『宣統長白彙徵錄志』(吉林府縣志輯 8, p.175))

- “東山人移墾至此，無所謂官，亦無所謂國語也，惟牧牛曰牛官，牧豬曰猪官，適與夫餘牛加馬加等名先後相附，加卽家字之誤…東山皆夫餘百濟新羅之故墟”(『宣統長白彙徵錄志』(吉林府縣志輯 8, p.163))

- “三韓百濟新羅故俗，拜天拜日月拜星辰，與歐西宗教大致相同，今長白一帶雖屬三韓百濟新羅之故墟，而此習已革”(『宣統長白彙徵錄志』(吉林府縣志輯 8, p.167))

- “祭祀…按東俗敬山神在三韓百濟新羅時代已有此俗沿及今日”(『宣統長白彙徵錄志』(吉林府縣志輯 8, p.168))

고조선, 부여, 신라, 백제 등 고대국가의 복식이나, 官名, 신앙 등 문화가 유사하며, 그러한 문화 전통이 현지 백두산 지역민들에게 계승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삼한 故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三韓 인식

“遼水之陽盡朝鮮三韓之地[爲馬韓辰韓牟韓, 今喀喇沁地]”(『光緒奉化縣志』(吉林府縣志輯 9, p.21))

‘喀喇沁(旗)’는 지금의 內蒙古 동부, 赤峰 일대에 해당하는데, 위의 기사에서는 이 지역을 三韓의 땅이라고 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牟韓을 ‘牟韓’이라고 誤記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저자가 삼한에 대해 자세히 고증을 거치지 않는 것 같다.

5. 맺음말

머리말 부분에서도 밝혔듯이, 이 글은 자료 소개와 해제 성격의 것으로서, 특정 주제를 논하기보다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고대사 자료의 절대적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삼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글 구성에 있어서 일반 논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은 중국에서 진행해온 만주지역 지방지 집성 현황에 대해 살피고, 다음으로,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성과인 『中國地方志集成』 遼寧府縣志輯, 吉林府縣志輯에 수록되어 있는 요녕성 지방지 총 54冊을 검토하여, 한국 고대사 관련 내용 448件을 추출하였고, 길림성 지방지 총 52冊을 검토하여, 한국고대사 관련 내용 217件을 발췌하였다.

요녕성 지역 지방지에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었고, 길림성 지역 지방지에서는 부여, 발해 관련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요녕성 서부 지역에는 고조선(기자조선) 관련 내용이나, 모용씨와 고구려의 전쟁, 麗-唐 전쟁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 또 요녕성 중·남부 지역에는 麗-唐 전쟁과 관련된 전승, 유적 등에 관한 언급이 많은데, 山城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어, 사료에 등장하는 산성의 구체적인 위치 비정에 참조할 가치가 있다. 그 외, 동부 지역에는 고구려 초기 도읍지인 桓仁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등장한다. 길림성 지방지에서는 農安, 夫餘 등지를 중심으로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확인되며, 고구려 전기 도읍지인 集安지역 지방지인 『輯安縣志』에는 광개토태왕비, 태왕릉, 장군총 등 고구려 유적의 당시 상황과 근대 학자들의 인식이 수록되어 있어, 고구려 연구에 참조할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廣開土王碑碑文』, 『舊唐書』, 『論衡』, 『三國史記』, 『三國志』, 『宋書』, 『梁書』, 『遼史』, 『魏書』, 『重修臺灣縣志』, 『通典』

高金山, 2008, 「地方志의 起源與發展」 『新疆地方志』 2008年 第3期

馬大正 等, 2001,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 黑龍江教育出版社

篠原啓方, 2008, 「중국 학계의 韓國上古史 인식」 『선사와 고대』 29

孫進己, 2001, 「當前研究高句麗歸屬的幾個問題」 『東疆學刊』 2001年3期

송호정, 2007, 「高句麗의 族源과 濊貊」 『고구려연구』 27

梁啓超, 2004(1926), 「清代學者整理舊學制總成績3 - 曆史學, 方志學, 傳記及譜牒學」 『中國近三百年學術史』, 東方出版社

芮逸夫, 1955, 「韓國古代民族考略」 『中韓文化論集』

王德恒, 許明輝, 賈輝銘, 1994, 『中國方志學』, 文化藝術出版社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任海濱, 王廣義, 2006 「東北地方志與東北史地研究」 『東北史地』 2006年 第4期

張革非, 1992, 『中國方志學綱要』, 西南師範大學出版社

조우연, 2011, 「중국 학계의 ‘濊貊’ 연구 경향」 『동아시아고대학』 25

陳光貽, 1998, 『中國方志學史』, 福建人民出版社

佟冬, 1987, 『中國東北史』, 吉林文史出版社

胡政平, 1999, 「簡論中國古今方志與編修」 『蘭州大學學報』 27(2)

■中文概要■

東北地区地方志所載韓國古代史資料

－以『中國地方志集成』遼寧府県志輯，吉林府県志輯(2006)為中心－

趙宇然

衆所周知韓國古代史文獻資料極為欠缺，以至其研究難以得到充分的發展。本文著眼於中國東北地方志這一特殊文獻資料，通過對其所載內容的仔細審閱，從中收集有關韓國古代史紀錄並分析其內容，以此對韓國古代史文獻資料的不足加以補充。

『中國地方志集成』遼寧府県志輯，吉林府県志輯(2006)是一部既是最為晚出的，又是最為完備的中國地方志集成成果，共收有遼寧省，吉林省兩地區地方志各54冊，52冊。因此本文以此為研究基礎資料，收集並分析其所載有關韓國古代史紀錄。據初步收集結果，遼寧省，吉林省地方志提及有關韓國古代史記錄各有448件，217件。雖然資料大部分都很簡短零星，但一些是並未載入正史的內容，再有一部分是關於古跡的當地傳承，又反映有著錄當時知識分子的歷史認同，因此這些資料對於韓國古代史研究會有相當積極的啟發。

www.kci.go.kr

關鍵詞：滿洲，地方志，『中國地方志集成』，遼寧省·吉林省，韓國古代史